

## 고대 무기의 재료

이영범, 106호 백제실 18:00~18:30

무기武器는 전쟁이나 전투에서 살상력殺傷力을 행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인류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시대로 발전하면서 고대 무기의 재료도 변화하였습니다.

특히, 철기 문화의 등장과 파급으로 인하여 청동기보다 단단하고 예리한 농구와 공구, 무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철기의 본격적인 사용으로 향상된 생산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을 뿐 아니라 고대 국가 성립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고대국가 형성기인 삼한 ~ 삼국시대에는 철기의 제작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정복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제 무기의 생산력**과 관계됩니다.

철기 제작방법에는 주조와 단조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시대 무기를 살펴보면 도刀, 검劍, 창, 화살촉, 도끼, 낫 등 다양합니다. 이 중 **도나 검은 주로 단조** 방법으로 만들어지며 강도를 높이기 위해 **열처리 기법**을 수행합니다.

이 후 전쟁의 재료로 화약을 기반으로 하는 총·화포, 미사일, 핵폭탄 등으로 발전합니다.



그림1. 완주 상운리 출토 철기



그림2. 대장간(김홍도 작품)

# <고대 무기 중 환두도의 발전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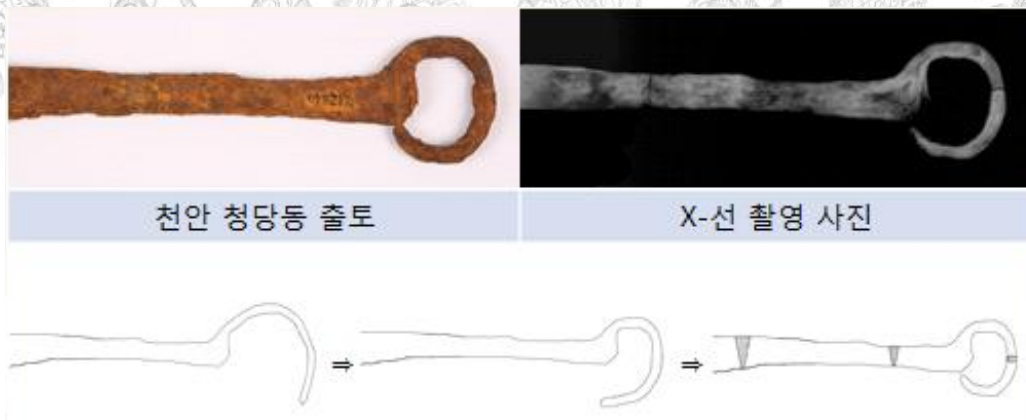


그림3. 1단계 (일체형) 제작과정



그림4. 2단계 (환두단접형) 제작과정



그림5. 3단계 (이체형) 제작과정

## 테마전 <영원한 삶의 집, 아스타나 고분>

권영우, 307호 중앙아시아실 18:00~18:30

아스타나 고분은 중국 신장웨이우얼자치구 투루판시에서 동남쪽으로 35km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이곳은 투루판의 옛 도성유적인 고창고성의 북쪽 근교에 조성된 지배계층의 공동묘지로, 고창고성이 번영했던 국씨고창국 시기(502~640년)와 당나라 지배기(640년~8세기 후반) 동안 많은 무덤이 만들어졌습니다.

20세기 초 서구 열강을 중심으로 하는 실크로드 탐험대들이 이 아스타나 고분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1959년부터는 중국 신장박물관이 집중적으로 발굴해 지금까지 400기가 넘는 무덤이 확인되었습니다. 폐쇄된 무덤 공간과 투루판의 매우 건조한 기후 때문에 이곳에서는 복희와 여와 그림, 나무와 흙으로 만든 인형과 토기, 음식, 종이문서 등이 거의 완벽하게 보존된 상태로 나왔고, 심지어 대부분의 시신도 미라의 형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20세기 초 일본의 오타니大谷 탐험대가 아스타나 고분에서 수집한 85점의 전시품에 대한 조사 성과를 특별 공개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전시의 특색은 부장품의 성격을 잘 드러내기 위해 전시품을 널방, 널길, 옆방으로 구분된 무덤의 내부 공간에 따라 분류하여 전시한 점입니다.

먼저 널길 양쪽에 마련된 옆방에 두었던 인형들을 전시했습니다. 문인, 무인, 환관, 여인, 악사 등 다양한 인형들은 죽은 자의 생활을 돕는 시종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인형들의 발아래에는 나무심이 빠져나와 있는데, 이 뾰족하게 나온 나무심을 무덤 흙바닥에 박아 인형을 세워두었습니다. 전시에서는 흙과 비슷한 색과 질감의 받침대에 다양한 인형들을 자연스럽게 배열하여 무덤 현장의 느낌에 가깝게 연출했습니다. 인형들 가운데 <말을 탄 무인상>은 말과 인형의 상반신, 하반신이 파편으로 남아 있던 것을 접합해 새롭게 전시한 것입니다. 아울러 복원 과정에서 컴퓨터 단층촬영CT 조사로 드러난 상의 제작 방법도 소개합니다.

죽은 사람이 안치되었던 널방에 있었던 부장품으로는 명기와 나무 받침, 복희와 여와 그림, 그 밖의 다양한 부장품을 전시했습니다. 이번에 전시하는 <구슬 무늬 명기와 나무 받침>은 1916년 조선총독부박물관에 입수되었을 때의 자료에 근거해 명기와 받침이 한 벌의 구성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이 명기에는 포도, 호두, 밀로 만든 과자 등의 다양한 음식이 가득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머리맡에 놓인 이 상차림은 저승에서 영원히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성찬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물관이 소장한 세 점의 복희와 여와 그림 가운데 가장 큰 <복희와



여와 그림>을 특별 공개했습니다. 중국 고대의 천지창조 신화에 등장하는 복희와 여와가 그려진 그림은 투루판 지역에서 6세기부터 8세기 중반까지 많이 만들어져 주로 무덤 널방의 천장에 설치되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2미터가 넘는 복희와 여와 그림을 실물 크기로 복제하여 전시실 천장에 매달아 무덤 내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도록 연출했습니다. 상반신은 사람, 하반신은 뱀의 모습을 한 두 신이 각각 들고 있는 컴퍼스와 구부러진 자는 둥근 하늘과 네모난 땅으로 이루어진 우주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창조신이 서로 몸을 꼬고 있는 모습으로 우주와 만물이 생겨나는 것을 상징하는 이 그림에는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 다음 세상에서 풍요롭기를 바라는 투루판 사람들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림1. 말을 탄 무인상, 투루판 아스타나 고분, 7~8세기, 높이36cm



그림2. 구슬무늬 명기와 나무 받침, 투루판 아스타나 고분, 6~7세기, 받침 길이 83cm



그림3. 복희와 여와 그림, 투루판 아스타나 고분, 7세기, 100×238cm

## 박물관 내 취향대로 보기

엄채현, 역사의 길 19:00~19:30

여러분은 박물관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제가 학생 시절 처음으로 박물관에 갔을 때 느낀 감정은 ‘어렵다’였습니다. 시대 순으로 구성되어 선사·고대관부터 차례대로 봐야 할 것 같은 1층에서 구석기실부터 패널들을 꼼꼼히 읽다 보면 신라실 쯤 갔을 때 이미 머리는 복잡하고 지쳤었습니다. 그런 제가 박물관에 마음을 열게 된 것은 역사적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겁매이지 않고 제 취향에 맞는 유물을 편하게 감상하고 부터입니다.

저는 조그마한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박물관 전시장 안쪽 작은 공간에 위치한 동물 모양 조각, 작은 불상, 휴대용 경전 등을 찾고 이것들을 한없이 바라보면서 박물관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것을 만든 사람, 이것을 쓴 사람들의 마음, 수천 수백 년 시간의 흐름 속에 전해지는 마음들을 떠올리다 보면 제 시끄러웠던 마음도 고요해지고 편안해집니다. 지금도 종종 찾아가는 제가 좋아하는 유물들은 박물관 구석구석에 숨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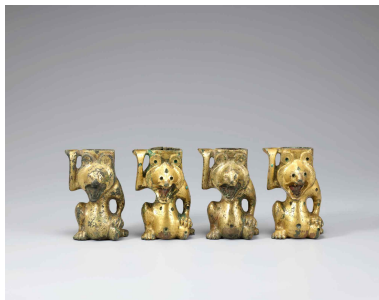


그림1. 곰 모양 상다리 장식



그림2. 흙으로 만든 부처와 보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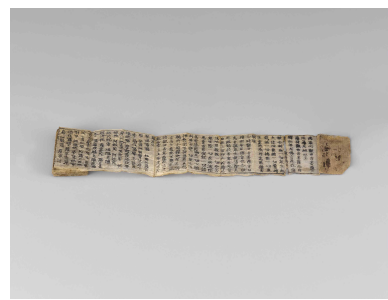


그림3. 최충헌 가족을 위한 호신용 경전과 경갑

저는 취향저격 유물을 찾으러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박물관에 오면 좋겠습니다. 돌도끼에서부터 서화까지, 박물관만큼 다양한 것들이 모여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요즘에는 본인들만의 독특한 생각, 패션 등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을 ‘힙스터’라고 하며, 많은 젊은이들이 ‘힙스터’가 되고 싶어 합니다. 박물관에 와서 나만의 생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나만의 이유로 좋아하게 된 유물을 찾아보고 나만의 관람 루트를 가진 ‘박물관 힙스터’가 되어 보는 건 어떨까요?

## 국보 반가사유상과 사유의 여정

신소연, 사유의 방 19:00~19:30



그림1. 금동반가사유상, 6세기 후반(좌), 7세기 전반(우), 국보

2021년 11월 공개된 <사유의 방>은 국보 반가사유상을 위한 전용 전시 공간으로 관람객은 자신만의 사유의 의미를 찾아보며 특별한 여정을 경험해볼 수 있는 전시실입니다.

반가사유상의 ‘반가半跏’란 한쪽 다리를 왼쪽 무릎 위에 올려놓은 반半결가부좌의 자세를 의미하고, ‘사유思惟’란 살짝 손을 얼굴에 댄 채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을 뜻합니다. 반가사유상은 인간의 생로병사를 고민하는 석가모니 부처의 태자시절 모습과 중생 구제를 위해 깊은 생각 끝에 깨달음에 도달한 보살의 모습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입가에 흐르는 신비로운 미소는 깨달음의 찰나를 상징하는데, 우리 마음 속에 깊은 감동과 위안을 선사합니다.

과거 한 점씩 교대로만 볼 수 있던 두 반가사유상을 <사유의 방>에서는 함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상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표정, 옷차림, 제작시기가 다릅니다. 6세기 후반에 제작된 반가사유상(전시실 왼쪽)은 이목구비가 날카롭고 화려한 보관과 장신구가 특징이지만 선 하나하나가 절제되어 있습니다. 반면 7세기 전반에 제작된 반가사유상(전시실 오른쪽)은 노출된 상반신에 간결한 보관과 장신구만 걸치고 있지만, 무릎 아래 옷 주름은 울동적입니다. 두 반가사유상은 화려하면서도 절제되어 있고 간결하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삼국시대 불상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번 전시 공간을 위해 박물관은 건축가와 협업하여 반가사유상의 에너지와 전시 공간이 하나가 되는 새로운 전시를 탄생시켰습니다. 기울어진 벽과 바닥, 천장은 현실을 벗어난 초현실적인 느낌을 주며 천장의 은은한 별빛은 우주의 무한한 공간을 상징합니다. 두루 헤아리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시간-사유의 방에서 나만의 특별한 경험의 여정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